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5. 7. 16.(목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농업디지털센터장	김태우	☎ 760-7250
		업무담당자	송희	☎ 760-7252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농업인 현장 의견 담는다·제주DA 파트너스 원탁회의 본격 운영

- 6개 작목, 13개 읍·면으로 확대·농업인 200명 참여하는 제주DA 파트너스 구성 -
- 실사용 테스트와 토론 통해 현장 의견 반영, 앱 개선과제 발굴 -

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디지털 농업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‘제주DA 파트너스 원탁회의’를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.

○ 원탁회의는 제주DA 앱의 현장 활용도와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상시 의견수렴 창구로,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과 디지털 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.

* 제주DA 앱: 기상·농업기술·경영정보 등 다양한 농업 데이터를 연계해 농업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디지털 농업 플랫폼

○ 지난해에는 총 3회의 원탁회의를 운영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, 이를 반영해 회원가입 절차 간소화 등 제주DA 앱 주요 편의 기능 4종을 개선했다.

□ 올해는 제주DA 파트너스 운영 대상을 6개 작목, 13개 읍·면으로 확대해 보다 폭넓은 현장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.

○ 노지감귤, 월동무, 당근, 양배추에 마늘과 양파를 추가하고, 권역·연령·성별 등을 고려해 200명의 파트너스를 구성한다.

○ 제주DA 파트너스는 원탁회의에 참여해 제주DA 앱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, 서비스 개선

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
- 원탁회의는 오는 7월 2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12월까지 권역별·작물별 총 6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.
- 올해는 전문 회의진행자(퍼실리테이터)의 진행 아래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한 토론과 제주DA 앱 실사용 테스트를 병행한다. 이를 통해 현장 의견과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고, 기능 오류, 사용성, 호환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.
- 수집된 의견과 검증 결과는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, 단기·중기·장기 개선 로드맵에 반영해 제주DA 앱 고도화에 활용할 방침이다.
-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“제주DA 파트너스는 농업인이 직접 디지털 농업 서비스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소통 창구가 될 것”이라며 “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주형 디지털 농업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